

‘블로그·미니홈피 정치’의 빠른 확산 어떻게 봐야 하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동진



초 근 유명 정치인들이 잇단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개설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대략 100여명에 이른다. 정치인들이 개인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와 별도로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굳이 이들의 차이를 구분한다면, 개인홈페이지는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반면, 블로그와 미니홈피는 포털 사이트와 같이 이미 네티즌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공간으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는 자신의 강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후자는 네티즌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산하는 데 중심이 놓이게 된다.

정치인의 개인홈페이지는 지지자들 간의 정치적·정책적 논의가 중점적으로 전개되는 반면,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진지한 대화보다는 친근감, 인기, 이벤트 등을 통한 소위 감성정치, 이미지 정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정치인들이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개설하는 이유

미니홈피와 블로그도 차이가 있다. 블로그의 출발과 의미는 ‘1인 신문’이라 할 수 있다. 그날그날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올려놓고 그것을 네티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점차 확대돼 정치에서 연예이야기까지 자신의 관심사를 폭넓게 공유하는 매체로 발전한 것이다. 반면 미니홈피는 블로그보다 진지하고 논리적이며 시대의 문제를 다루는 엄밀함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니홈피는 가벼운 일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네티즌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미니홈피 중에서도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블로그와 미니홈피의 일반적인 특징이 그러하다는 것이며, 정치인들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인들의 미니홈피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사진이나 가족사진 및 자신의 삶의 여정을 감성적으로 표현하면서 네티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정치를 개인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니홈피중 가장 많은 방문자수를 보이는 박근혜를 비롯해서 김근태, 정동영, 유시민, 이명박, 손학규, 고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정치인들이 네티즌들이 모여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 것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왜 정당홈페이지, 개인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미니홈피를 통해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몇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정당이 현격하게 대중정당이 아니라, 명사정당 혹은 전문가정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내정당화를 추구하면서 정당의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서 정치인이 대중적 지지를 폭넓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만을 갖고서는 대중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유권자층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요한 활동무대인 인터넷은 과거 자신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을 도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및 참여에 대한 네티즌의 의식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공간의 거리에서 일반시민은 정치인의 목소리에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은 감성과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간헐적이긴 하지만 현실에 대한 엄밀한 자기논리 등이 결합되면 쉽게 반응을 보인다. 미니홈피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넷째, 미니홈피가 감성정치, 이미지정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니홈피는 사회적 이슈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되고 논쟁에 쉽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곳에는 95% 이상이 감성적 내용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특히 갑론을박의 논쟁에 휩싸일 염려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미니홈피의 ‘1촌 맺기’와 같은 기술적 특징도 정치인에게는 매력으로 다가간다. 1촌을 맺은 네티즌들은 적극적인 지지자이자 정치인을 인터넷공간에서 홍보해주는 전도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미니홈피

미니홈피가 짧은 기간에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인기를 끄는데 매우 유용한 경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인기가 감성정치, 이미지정치에 기반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진정한 정치적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인기가 정치적인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인기가 아닌 이상 그 인기를 바탕으로 성공한 정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유익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를 개설하기 쉬운 장점을 활용해서 자발적인 팬클럽들이 만들어지고 이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쉽게 형성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감성정치 및 이미지정치로 네티즌들에게 느슨하게 다가가서 이들을 적극적인 지지자로 유인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소위 차기 대권주자들이 앓다튀 미니홈피를 개설하고 운영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대권주자로서의 당내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며, 당내에서 대권후보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제도적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기에는 네티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2002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 보여준 인터넷의 위력을 경험한 대권주자들은 대선이 임박하게 되면 네티즌의 조직적 네트워크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연예화’는 지양해야... 리더십으로 지지 유도

미니홈피나 블로그가 정당사이트나 정치인 개인홈페이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된다면 인터넷을 통한 정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사이트를 통해 정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그리고 지지자 및 유권자들과의 폭넓은 정치적 토론을 통해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지지자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통한 감성정치로 네티즌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지지층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가 이러한 경로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전개할 수 있다면 인터넷은 정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는 정당사이트나 정치인 개인홈페이지를 통해서 좋은 논의와 논쟁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인들은 네티즌들이 토론하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분명 토론이 전개되는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논의보다는 직설적이고 비이성적인 표현이 많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정부가 좋은 시민을 만든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좋은 정치인의 좋

은 의제설정이 좋은 논의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논의를 위해 게시판의 토론에서 얼마나 노력을 전개했는가를 살펴보면 좋은 사례를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좋은 의제를 갖고서 좋은 논의를 통해 정치인이 발전하고 유권자가 발전하면서 정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경로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 어려운 경로와 쉬운 경로가 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논의와 논쟁을 통해 지지를 확보하는 경로는 매우 어렵고 힘들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임에 틀림없다. 반면 정치를 개인화하면서 감성정치와 이미지정치를 활용하는 것은 쉬운 경로다. 모두가 쉬운 경로만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작용한다면, 그 또한 정치인으로 사회적인 민주적 리더십을 갖춰야 할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감성정치, 이미지정치라는 쉬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현실에서 정치는 연예화되기 쉽다. 소비자자와 시민은 질적으로 다르다. 시민을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어려운 과정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적 권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시민들로부터 확보하는 지지와 인기는 다른 것이다. 지지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지지하는 것이다. 인기는 단순히 연예인들이 누리는 것처럼 그 실체가 사회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미니홈피가 짧은 기간에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인기를 끄는데 매우 유용한 경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인기가 감성정치, 이미지정치에 기반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진정한 정치적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인기가 정치적인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인기가 아닌 이상 그 인기를 바탕으로 성공한 정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유익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정치인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일련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중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인터넷의 다른 경로가 미니홈피나 블로그 이외에 정당사이트 및 정치인 홈페이지, 나아가 정치웹진의 형식으로 분명 존재한다. ☉